



담배와의 전쟁

이슬기

서울 개웅초등학교 5학년 3반

우 리집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다. ‘금연! 담배 연기가 가족건강 해진다. 담배 한 모금 생명단축.’

이 글자가 이제는 우리집 가훈처럼 되어버린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래도 무서하고 열심히 담배를 피우고 계신다.

뉴스에서도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가가 나오면 아예 채널을 돌려버리시는 분이시다. 하루에 두 갑은 피우시는 것 같다.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시고 그냥 담배가 맛있다고만 하신다.

“슬기야, 우리 슬기가 커서 결혼하면 그때 끊을게.” 하시면서 나를 놀려 주신다.

담배를 끊은 사람은 너무나 지독해서 사람들이 왕따를 시킨다. 아버지는 왕따 당하기 싫어서 담배를 끊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또다시 담배를 피우신다.

엄마와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왕따 당해도 좋으니 제발 담배를 끊어 보세요.” 했더니 아빠 말씀이 “싫다. 왕따가 얼마나 무서운데……” 하시면서 웃으신다. 정말 못말리는 아빠의 담배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나쁜 것을 만들어 파는 어른들이 더없이 원망스럽고 담배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런던 어느날, 그날은 아빠께서 일찍 들어오셨다. 몸살끼가 있는 지 열도 나고 식은땀을 흘리고 누워계셨다. 엄마는 걱정이 되시는 지 약도 드리고 물수건으로 이마도 닦아 주셨다.

“여보, 제발 건강을 생각하세요.”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긴 한숨을 쉬셨다.

나는 살며시 아빠곁으로 다가 앉아 아빠 손을 잡고 “아빠,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아프잖아요. 제발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 아빠가 이렇게 아프시면 어떻게 해요? 아빠가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우리들도 건강하게 살지요.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어 보세요? 네, 아빠.” 하면서 영영 울었다. 아픈 아버지를 보니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파왔다. 아빠께서는 괜찮으니 울지마라고 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 주셨다.

아빠도 이번 기회에 담배를 끊어보겠다는 결심을 하는 눈치였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아빠가 아프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이번 일로 아빠가 마약과도 같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하며 간절하게 기도 드렸다.

그후로 아버지는 큰 결심을 했다면서 우리들을 부르셨다.

“자, 이제부터 아버지는 금연을 할테니 지켜봐” 라고 하셨다.

“엄마와 너희들은 아빠를 도와주길 바란다.” 하시면서 “지금부터 담배와의 전쟁이다.” 하고 선포하셨다.

그후로 우리집은 담배 냄새도 담배 연기도 안 나고 있다.

아빠께서는 지금 힘들게 담배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그런 아버지께 우리는 과자도 드리고 사탕도 드리고 안마도 해 드린다. 담배와의 싸움으로 힘들어 하시는 아빠가 안쓰럽지만 자랑스럽기도 하다.

우리 가훈처럼 되어버린 금연 표어는 휴지통으로 들어간 지 오래 되었다.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크게 말하고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72**

엿글쫓기 은상 수상작품

아빠의 금연 작전

윤정민

전주 서원초등학교 5학년 2반

담 배란 정말 떼기 힘든 마약같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

올해도 우리 가족은 아빠를 위해 금연에 대한 작전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먼저 금연의 필요성을 쓴 A4 용지를 방 곳곳에 붙이는 것으로 작전의 시작을 알렸다. 다음엔 아빠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 담배를 모조리 숨겨 버렸다.

그리고 엄마께서는 간식을 준비하기로 하셨다. 또 TV의 금연광고를 보고 가족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처음엔 아버지께서 화를 내셨지만 결심을 하신 듯 금연을 하겠다고 하셨다.

첫째날, 하루종일 한 개비도 안 피우시고 퇴근해 돌아오신 아빠를 보시자 엄마께서 제일 기뻐 하셨다.

둘째날, 이번엔 아빠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아빠께선 내가 왜 꼭 금연을 해야 하느냐고 따지셨다.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적 긴장감을 줄일 수 있고 비만도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엄마께서도 이에 맞서 “담배의 해로운 가족의 건강과 더불어…….” 하시며 조목조목 말씀하셨다. 우리 형제도 일어나 응원을 보냈다. 부모님의 말다툼은 엄마의 승리로 끝났다.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셋째날, 담배를 찾고 계시는 아빠를 보고 우리는 아빠 몰래 숨겨둔 담배를 모두 잘라 쓰레기통에 넣고 물을 부어 버렸다.

아빠의 금연다짐이 무너지 뻔한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넷째날, 금연이란 다짐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아빠는 끝내 담배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셨다.

학교에 갔다오니 금연시위 A4 용지는 모조리 떼어져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고 아빠께서는 담배를 맛있게 피고 계셨다.

“빠끔 빠끔 후~”

아빠께선 속이 풀리신 듯 하였다. 오랜만에 맑은 담배 냄새에 두통이 나고 집안이 담배 연기로 온통 가득 차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너무 실망하고 말았다.

‘금연하기가 그렇게 힘이 많이 드실까?’ 그래서 우리 가족은 오늘부터 또 다시 아빠의 금연을 위한 작전에 들어간다.

온 가족이 차례로 아빠에게 매일 금연을 전하는 사랑의 쪽지 편지를 쓰기로 한 것이다.

“사랑하는 아빠, 온 가족의 바람을 잊지 마세요. 아빠께서 금연을 하시면 저희 가족은 더 이상 바랄게 없답니다. 아빠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행복과 화목이랍니다. 아빠, 꼭 금연하세요.”

아빠께서 가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회에 꼭 금연을 하셨으면 좋겠다. 

